

과기부 '건강한 연구실' 전북대 선정

환경복원공학 연구실, 학생 주도 연구 수행 지원, 독창적 연구 성과 창출

전북대학교 환경복원공학 연구실(연구책임자 백기태)이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연구실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정책이다. 연구실 관리와 연구문화 및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연구자의 자기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선정의 영예를 안은 환경복원공학 연구실은 9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토양과 지하수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매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생 연구원들에게 주도적으로 연구 수행 기회를 부여해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연구실 신동훈·김태선 석사과정 학생이 각각 세슘 오염 토양 정화 연구와 침수기 논 토양에서 산화공간에 의한 비소의 이동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국제 학회 등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전북대학교 환경복원공학 연구실(연구책임자 백기태)이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16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SCI 저널 50편(주저자 29편), 국내 학술지 5편, 학술대회 발표 117회(수상 12회), 특허 등록 5건, 출원 9건, 기술이전 1건 등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졸업한 14명 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올랐다.

이 같은 성과는 남다른 연구실 문화에 기인한다. 이 연구실 학생 연구원들은 1인당 1개의 연구 주제를 담당해 1인 이상의 연구 노트 수기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와의 면담과 피드백을 통한 연구의 공유, 팀팅, 단체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매주 공

유한다.

또 조직문화 역시 연구 책임교수와 구성원 사이에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수평적 문화를 정착했고, 인건비 풀링제를 통해 인건비 100% 지급, 학생 개인 경력 관리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한 복지 보장, 매년 1회 홈컴퍼데이를 통한 선후배의 지속적인 연구·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험실 안전환경 시범 선도모델로 선정돼 안전관련 시설 장비를 확충했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과 일지 작성 등을 통한 연구 안전관리에 도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백기태 교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심해 노력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우리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해 더 큰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된 연구실에 대해 릴레이 현판식을 추진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 주도”

전북대 조호성 교수, 감염병 특위 위원장 선임



이를 감안해 올 하반기 중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 관련 포럼을 주최하고, 회원 수의사와 과의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형 동물감염병이 모두 국경을 넘나드는 동물살병인 만큼 수의사들이 주도해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임 위원장을 맡은 조호성 교수는 “많은 농가에 피해가 큰 재난형 동물감염병은 수의사들이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들 모두 동물감염병 방역대책을 자문하거나 관련 연구를 기획하는 등 현장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수의대 수의학과)가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감염병 특위) 위원장에, 탁동섭 교수(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다.

감염병특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에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수의사가 중심이 돼 대응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가 구성한 것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전북대 탁동섭 교수, 전남대 이봉주 교수, 강원대 오연수 교수와 케이서이드 선우 선임 박사,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 북한 수의사 출신 조총희 연구원 등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코로나19 추

전북체육회 “제2의 최숙현 사태 안돼”

선수인권보호 특별조사팀 운영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선수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는 최근 가혹행위에 시달려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철원8중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성 범죄·가혹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운영한다.

특별 조사팀(가칭)은 '롤린스포츠 특

별조사위원회'로 운영되며, 유관기관인 전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인과 대학교수, 운동선수 출신 등을 위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도내 실업팀과 대학 운동팀을 대상으로 집중 활동을 펼치게 되며, 선수권외보호를 위해 선수조사는 물론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지원, 법률적 검토, 선수폭력 대처 예방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은성 기자

지구살리기 환경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구살리기 환경교육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020 지구살리기 실천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환경생태교육 실천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계기 수업 자료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 재구성을 통한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교과통합형 환경교육 실천시리즈를 발간해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도교육청 8층에서 수업자료 개발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지구살리기 수업자료 감수협의회를 가졌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남윤희 연구사가 ▲일회용품 줄이기 ▲탄소발자국 줄이기 ▲쓰레기 재활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후위기와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학습자료를 감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만큼 교육과정 안에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내용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지구공동체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13일 청년 구직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대 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 온라인 설명회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13일 청년 구직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 인스타그램(Instagram)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성공패키지 ▲온라인 청년센터 및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재학생은 “코로나19로 취업 관련 행사가 많이 취소돼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슬로건(초·중·고 및 교직원), 캠페인사(초·중·고 및 교직원) 등 4개 분야다. 공모주제는 △달 달게 · 달 짜게

먹기, 채소·과일 많이 먹기, 식중독 예방 등을 담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잔반 ZERO 급식 실천 등을 담은 '환경도 생각하는 학교급식' △슬기로운 급식 시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학교급식'을 내용으로 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학교급식팀) 또는 이메일(luckysa@jeondu.kr)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